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2월 31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이사야 60장 1-3절

설교제목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년에는 ‘교회여 일어나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표어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일어나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선, ‘일어나라’는 명령 속에는 이 명령을 듣는 대상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듣는 자들은 절망의 상태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나라는 선포는 절망적이고, 결코 희망이 없는 곳에 주어지는 회복과 구원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 가운데 빠진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어나라’는 명령의 대상이 바로 시온임을 알 수 있습니다.(사60:14) 시온은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회복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회복의 선언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속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오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서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빛이 이르렀고’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근거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를 위해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국 이사야 60:1은 이사야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함께 거하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일어나서, 어떤 절망적인 어둠에서도, 그 어두움을 뚫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참고 **엡5:8-9**)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있습니다. 빛과 영광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빛은 어둠속에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영광은 독사인데, 리플렉트입니다. 즉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영광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빛과 영광 자체는 아닙니다. 빛과 영광 자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임하여 계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드러내고, 반영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은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영예, 존경, 지위를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명예 존경 지위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제와 존경과 지위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가능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예와 존경과 지위를 독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예와 존경과 지위를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데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시간, 재물, 명예,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이웃의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19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고 합니다. 이 말씀을 소요리 문답 4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 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이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시 말해서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모든 교회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멸시를 받습니까? 교회가 허접한 인간의 작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의 시스템과 방법론과 세상의 마케팅 방법을 가져다가 인간 냄새가 가득해서, 누가봐도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세상이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너무 흡사하는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과 다를까봐 걱정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교회가 신비롭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성경을 근거로 한 교회를 하지 않으려 합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셔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교회를 리빌딩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2024년 한 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가 여호와와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교회를 리빌딩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내년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